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



박 상 오 변호사의
콘텐츠 법률 산책

요즘 우리는 궁금한 것이 생기면 검색창 대신 인공지능에게 먼저 물어본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럴듯한 답변을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데이터’가 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뉴스 기사, 사진과 영상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하는데, 그 안에는 개인의 이름, 얼굴, 직업, 연락처와 같은 개인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도 많다. 이용자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대화창에 입력하는 문장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아이가 몇 살인데 어떤 학원이 좋을까요’라는 질문 한 줄에도 개인정보가 담긴다.

현재 시행 중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약칭은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사용되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정의하고 그 구축·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자체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



/유투이미지

펴보아야 한다.

주체별로 먼저 사업자 측면을 살펴보면, 인공지능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법령 공개된 개인정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수집·이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해 8월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를 통하여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에 이용하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어야 하고 목적의 정당성, 처리의 필요성, 이익 형량과 함께 안전조치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기본법상의 의무가 더해

진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결과물에는 인공지능으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제31조), 사람의 생명·신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관리방안 수립, 설명 방안 마련, 사람에 의한 감독 등의 책무를 부담한다(제34조).

이용자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업무 중 무심코 고객 명단이나 계약서를 대화창에 붙여 넣는 순간 그 행위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될 수 있고, 그 책임은 소속 회사에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에게 주어진 권리도 있는데 인공지능에 의한 자동화된 결정이 자신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인공지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사회·경제생활의 주요 전제가 되어 가고 있다. 사업자는 학습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근거와 안전조치를 문서로 남겨 두고, 이용자는 자신이 입력하는 정보가 어디까지 쓰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

3000만원 넘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술로 설득해야



기자 수첩
양 성 운
(산업부)

“좋아진 만큼 비싸진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가격 인상인가.”

현대차가 6년 만에 선보인 8세대 아반떼가 출시와 함께 가격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형 아반떼의 기술된 모델은 2398만원부터 시작해 최상위 트림이 3152만원이다.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대 적용 전 3042만~3699만원에 달한다. 옵션과 세금까지 더하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실구매 비용은 4000만원을 넘어선다. 준중형 세단이라는 아반떼의 기존 가격 이미지를 생각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부담은 커졌다.

물론 현대차가 내세운 성능을 보면 가격

인상도 이해가 된다. 차체는 중형 세단급으로 커졌고, 플레오스 커넥트와 첨단 안전·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했다. 단순히 원가 상승만으로 가격표를 설명할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설득할 기술의 수준이다. 3000만원을 넘어선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바라보는 소비자는 이제 단순히 연비와 옵션만 비교하지 않는다. 비슷한 돈으로 살 수 있는 수입 전기차와 중국 전기차,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경험까지 함께 저울질한다. 자동차의 가치 기준이 ‘출고 당시 사양’에서 ‘구매 후에도 얼마나 진화하는가’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가 플레오스 커넥트를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과 앱 생태계 등을 통해 차량이 판매 이후에도 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차

별화다.

가격은 더욱 까다롭다. BYD는 돌핀을 2450만원부터, 돌핀 액티브를 2920만원, 아토3를 3490만원에 내놓으며 가격 자체를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BYD가 출시한 PHEV 씨라라인 6DM-i는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 1000km에 육박하지만 가격은 3750만원이다. 아반떼 하이브리드 최상위 트림과 비교하면 국산 준중형 세단의 가격표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반떼는 탄생과 함께 국민차 타이틀을 이어오며 ‘합리적인 첫차’의 상징이었다.

결국 현대차는 단순히 ‘비싸졌다’를 넘어 비싸진 만큼 무엇이 달라졌고, 3년 뒤에도 왜 이 차의 가치가 남아 있는지를 증명하는게 중요하다.

/ysw@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19일 (음 7월 7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60년생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72년생 여행을 통해 기다리던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84년생 뜻밖에 행운을 얻게 됩니다.



49년생 대화에 설득력이 있는 하루입니다. 61년생 금전운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73년생 후배들을 만나 금전을 지출하게 됩니다. 85년생 감정에 빠지면 큰 돈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50년생 가는 길이 험해 어려움이 따릅니다. 62년생 여행은 마음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74년생 금전운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86년생 공공기관을 조심하세요.



51년생 아주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63년생 매사에 몸조심, 말조심 해야 합니다. 75년생 술자리에서 지나친 과음은 독이 됩니다. 87년생 영화를 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세요.



52년생 자신의 매력을 한껏 발휘하도록 하세요. 64년생 철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세요. 76년생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88년생 조그만 인연이 많은 날입니다.



53년생 서쪽과 북쪽 방향에 가지 마세요. 65년생 집 밖에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77년생 주변에 행복한 일이 가득합니다. 89년생 새로운 일을 추진하기 전에 한 번 더 고심하세요.



54년생 가족과 고인을 상의하세요. 66년생 분수를 지켜 객관적으로 생각하세요. 78년생 사업을 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90년생 미뤄뒀던 일을 계획해 보세요.



55년생 여행계획이 있으면 당장 떠나세요. 67년생 주위에 신력을 얻어야 합니다. 79년생 다른 사람이 당신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91년생 큰 어려움이 있으니 모든 것에 주의하세요.



56년생 새로운 발상이 많이 나오는 하루입니다. 68년생 집중하기 어려운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80년생 하는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됩니다. 92년생 상대방을 조심스럽게 관찰해보세요.



57년생 혼자만의 힘으로 큰 일을 해결합니다. 69년생 여유롭고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드립니다. 81년생 나태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93년생 사소한 일에 행복감을 느낍니다.



58년생 밝은 햇빛이 머리 위에 떠오르니 모든 사람이 우러러봅니다. 70년생 재물이 이 안중입니다. 82년생 운동을 할 때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94년생 재물이 들어오지만 그만큼 지출합니다.



59년생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71년생 에너지 넘치는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노력의 대가를 보게 됩니다. 95년생 연인에게 선물을 하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회의四季 업의 상속

인상적인 기사를 보았다. 20년 전 휴친 필통 값이 25만 원이 되어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청주시에 소재한 한 이마트 기부함에 현금 25만 원과 손편지가 남겨졌는데, 편지에는 어린 시절 철없는 마음에 휴친 필통이 평생 부끄러웠다는 것이다. 세월이 지났지만, 이 기부자는 용기를 내어 고백하며 반성의 마음을 함께 남긴 것이다. 청주시는 이 돈을 취약계층에게 따뜻하게 전하기로 했다는 훈훈한 내용이었다. 세상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양심과 수치심이라고 석가모니는 설한 바 있다. 불가에서는 모든 존재는 업(業)의 소산이라고 말한다. 업이란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와 사고로 이를 삼업(三業)이라 하며 업만이 자기 재산이니 그림자처럼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남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자를 만나고 남을 이기면 자기를 이기는 자를 만난다.”라는 글귀는 불교의 집아함경에 보이는데, “뿌린 대로 거둔다”는 성경 구절과도 상통한다. 업의 궤적에 따라 결과를 받는 것을 ‘과보’라고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업보(業報)’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업의 과보라는 뜻이다.

이러한 업보는 윤회의 당연한 재료가 된다. 불교 초기경전에 해당하는 앙굿따라 니까야에 업의 상속과 관련한 계승이 나온다. 존재로서 태어난 이상에는 늙고 병들고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사랑하는 아들과 모든 소유물을 두고 떠나가야만 함을. 그러하므로 ‘내가 업의 상속자이고, 업으로 인해 태어나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업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네. 내가 짓는 착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그 결과는 나 자신이 받아야만 하네’라고. 그래서 후에 대승불교가 자리 잡은 후에는 불가에서는 윤회가 들어나 윤회가 드는 해에는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 행사를 한다. 뜻 그대로 살아있을 때 업적을 미리 닦는다는 기도 의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 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도의 퍼즐 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합인도서

2	9	9	7	8	1	6	2	6
6	6	1	2	2	9	8	9	7
8	7	2	9	6	6	9	1	7
6	8	2	9	2	6	9	7	1
2	1	6	6	7	9	2	8	9
7	9	9	2	1	8	2	6	6
9	2	8	6	6	7	1	9	2
9	2	6	1	9	2	7	6	8
1	6	7	8	9	2	6	2	9

7	2	6	2	6	1	9	8	9
6	2	9	8	9	2	7	6	1
8	9	1	9	6	7	2	2	6
2	8	6	8	9	9	1	7	2
6	9	7	1	2	2	8	6	9
2	1	9	7	8	6	2	9	6
9	7	8	6	2	6	9	1	2
9	6	2	2	1	8	6	9	7
1	6	2	9	7	9	6	2	8